

투데이 칼럼

스피치의 감각 기법

**미**국의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그것을 듣는 것이다”라고 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혼자 청산유수처럼 말 잘함 보다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할 때 진가는 드러나는 것이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사람과 사람의 정보와 생각, 감정, 욕구가 교환되는 그것을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할 때 특(인)실보다 일반실이 더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위급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혼자 누워있는 경우보다 일반실에서 환자와 이야기 나누며 치료받는 것이 더 좋아서이다. 병실도 벽 쪽보다 창문이 있는 쪽이 더 좋고 병원이나 요양원 환자들도 보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는 것, 신나는 것, 관련 있는 자들의 단합하는 것들을 보면 병도 잘 치료되고 좋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는 노년기를 보낼 때도 독거노인이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소통하는 생활을



김 양 옥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하도록 경로당, 마을회관, 요양원 등에서 소통과 관계하며 살아야 하도록 한다.

그리고, 어울리고 관계를 맺으며 지낼 때 상대의 욕구를 파악하여 말로 기분이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기분을 잘 맞추며 말할 때 표현하고 싶은 그것을 정확히 하지만 상대가 언짢은 말은 하지 말고 참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생각, 기분, 욕구, 주변 상황까지 관찰 분석하여 말하는 특별한 감각이 필요하다.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샤프리스와 대니얼 사이먼스가 정의한 “무주의 맹시”라는 현상이 있다. 이 현상은 사

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느라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두 학자는 사람들에게 검은 셔츠를 입은 팀과 흰 셔츠를 입은 팀 중에서 흰 셔츠를 입은 팀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수를 맞추었지만, 그 실험 중에 나타난 고릴라를 보았느냐는 질문에는 50% 이상이 답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무주의맹시” 현상은 말할 때도 나타나는데 말을 시간 내에 실수 없이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놓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준비한 내용에만 집중하느라 흥미를 잃은 상대들의 생각, 표정을 살피지 못하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만 하던

어떻게 되겠는가?

말할 때 상황을 관찰하면서 실행하면 이야기 흐름을 좋게 바꿀 수 있다. 말할 때 영무새처럼 말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말의 환경에서 능수능란하게 말을 해보면 유익하고 정확한 스피치가 되는 것이다.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의 주장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말을 잘 나누는 사람이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이다.

가정이나 직장 사회에서 생기는 갈등을 말로 해결해 보자.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한번 더 분석하고 생각하여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현대인의 자질을 높여 가 보자.

말은 유창함보다도 서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에서 통하기 시작하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갈등도 예방되고 해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도 서로 통하는 말로 스피치의 달인이 된다면 인생의 역경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독자재언

따뜻한 봄, 방심이 부르는 졸음운전 사고

완연한 봄기운이 찾아오면서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주말이면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꽃구경이나 여행을 떠나는 차량들로 도로는 활기를 띠지만, 이와 동시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졸음운전은 단순한 피로 상태를 넘어 도로 위의 무의식 상태라 불릴 만큼 위험하다. 실제로 시속 100km로 주행 중 3초만 눈을 감아도 약 80km 이상을 아무런 인지 없이 주행하게 되며, 이는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 봄철에는 따뜻한 기온과 나른한 날씨로 인해 운전자의 집중력이 쉽게 저하된다. 장시간 운전이나 전날 수면 부족, 식사 후 포만감 등은 졸음

을 더욱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이 필수이며, 장거리 운전 시에는 주기적으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졸음이 느껴질 경우 즉시 운전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한 봄날 즐거운 나들이가 한순간의 방심으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운전자 모두가 졸음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안전 운전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라며 작은 실천이 나의 가족,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서지는 부안경찰서 서림지구대 순경

사내 · 외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포르투갈서 개최 ‘트렌스젠더 가시화의 날’ 행진



지난 29일(현지 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국제 트렌스젠더 가시화의 날’ 행진이 열려 한 밴드가 연주하고 있다. ‘국제 트렌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매년 3월 31일에 전 세계적으로 기념되는 날로, 트렌스젠더·젠더 비순응 사람들의 성취와 존재를 축하하고 차별·폭력에 맞서 권리 향상을 촉구하는 날이다

사설

고립되는 트럼프

유럽에 이어 일본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요청에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연한 척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또 말을 바꿨지만, 실제로는 어느 때보다 격노했다고 전해진다.

유럽연합 회의에 참석한 룩셈부르크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를 ‘협박(Blackmail)’이라고 규정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스페인도 “어떠한 임시방편적 조치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네덜란드도 파병에 반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협박(Blackmail)”이라고 규정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들에 이어 다른 유럽 국가들도 트럼프가 통보조차 없이 멋대로 일으킨 전쟁에 관여할 뜻이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동맹국들의 이런 싸늘한 반응에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없다”고 돌연 입장을 뒤집었다. 불과 사흘 전 꺼낸 파병 요구가 사실은 나토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대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SNS에서도 “이미 상당한 군사적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더 이상 나토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일본과 호주, 한국 등 동맹국들을 거론하며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태연한 척 반응했지만 트럼프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유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평생 처음 봤다”고 했다.

뉴욕타임즈는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를 비꼬아 ‘미국 홀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미국이 외톨이가 됐다고 지적했다.

BTS 복귀 공연

지난 3월 21일 그룹 BTS의 복귀 공연이 열렸다. 공연이 펼쳐지는 서울 광화문 일대엔 많은 인파가 몰렸고 주변 지하철역은 폐쇄되는 등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광화문 광장은 거대한 공연장으로 바뀌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BTS 팬들이 즐지어 검색대를 통과했다.

바리케이드 밖 ‘명량’도 벌써부터 팬들 차지였다. 저녁 8시 비티에스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인근엔 낮부터 3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공연이 시작되면 최대 2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 광화문 일대 사직로와 새문안로 등은 밤 11시까지, 세종대로는 공연 다음날인 새벽까지 차량이 통제됐다.

세종대로와 사직로, 새문안로를 지나는 버스들도 전부 우회 운행했다.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역 세 곳에선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

했다.

광화문역은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경복궁역과 시청역은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지하철이 서지 않았다.

경찰은 공연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지정된 출입구로만 나갈 수 있도록 하며 인파를 통제했다. 또 금속 탐지기와 폼수색 등을 통해 테러 위험에 대비하기도 했다.

한편 세계적인 K-POP 그룹 BTS가 정규 5집 앨범 ‘ARRANG’을 통해 한국 전통 민요 ‘아리랑’을 세계무대에 올려놓으면서 아리랑의 세계화에 나선 정선군의 각종 사업도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 아리랑박물관은 이번 BTS 앨범 발표와 관련, ‘아리랑이 건넌 민요를 넘어 글로벌 대중문화와 결합해 새로운 생명력을 획득하는 상징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